

한·미 FTA 타결

자동차·섬유 웃고 농업·문화 울고

한국 경제 어떤 영향 미치나

거래 상품 80% 무관세... 대미교역 증가

휴대폰·반도체·컴퓨터 등은 영향 미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우리 경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량,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 등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과의 교역 증가=지난 2005년 미국의 수입 규모는 1조7천만 달러. 일본·중국·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수입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이런 와중에서 FTA 타결로 두 나라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80%가량이 무관세로 거래된다.

GDP 7% 증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의 발효로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7~10년에 걸쳐 7.2%(32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1월 산업자원부의 용역보고서는 한미FTA로 최대 10만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어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가 최대 404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 간 희비 엇갈려=한미FTA 체결로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자동차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로 농업생산액은 1조1천500억~2조2천800억원 줄고, 대신 수입은 1조8천300억~3조1천700억원 늘게 된다.

문화산업도 단기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날 경우

향후 20년간 저작권료로 2천44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영화의 경우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현행 20%인 공중파TV의 외국물 방영 비율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반도체·컴퓨터 등 전자분야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6년 대미 수출·수입 10대 품목

Table with 5 columns: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Lists top 10 export and import items from South Korea to the US.

Table with 5 columns: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Lists top 10 import items from the US to South Korea.



1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열리고 있는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이 협상장으로 향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미국측 협상단이 협상장에서 나오고 있다.

한미FTA 협상일지 2006년. A timeline of key events from January to June 2006, including signing of the agreement and ratification processes in both countries.

칠레 무역적자 22억달러 싱가포르 흑자 34억달러

한국 FTA 성적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총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발효시켰다.

우리나라는 FTA 발효 이후 칠레와의 수출입 규모가 확대됐고 싱가포르와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 발효 3년째인 작년 4월 이후 10개월간 우리나라의 대 칠레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2억3천900만 달러로 발효 직전 1년간(2003년 4월~2004년3월) 무역수지 적자액 8억200만달러보다 무려 179.2%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적자 확대는 대 칠레 수입의 79.5%를 차지하는 동(銅)의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동 관련 제품을 제외하면 무역수지 흑자는 발

효전 1년간 1억4천600만달러에서 발효후 1년차 3억2천600만달러, 2년차 4억2천100만달러, 3년차 7억9천600만달러로 매년 증가했다.

수출도 자동차가 발효후 3년간 연평균 51.8%나 증가하면서 4만8천900여대가 늘어난다. 현지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107.6%), 경유(308.5%), 컬러TV(23.5%) 등 관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무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발효 1년을 맞은 싱가포르와의 FTA 성적표도 긍정적이다. 당초 싱가포르를 무관세국가이므로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로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결과는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발효 전 11개월(2005년 3월~2006년1월)간 대 싱가포르 무역수지 흑자는 23억1천800만달러였으나 발효후 11개월(2006년 3월~2007년 1월)간 흑자규모는 34억1천100만달러로 47.2%나 증가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덕수 "사지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범"

김종훈 "북한산 넘는데 깔딱고개 있듯이"

협상장 안팎 밀알말

1년여간 진행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양측 협상단은 물론 국내외 정관계 인사들까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 절묘한 비유법을 사용하여 입장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했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밭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며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2002년(월드컵에선) 16강이 소망이었는데 4강까지 가버렸다. FTA를 통해서 G-10 안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노무현 대통령, 2006년 2월 20일수석보좌관 회의)

"시애틀항 한국배 보고싶다"(권찬호 시애틀 주재 총영사, /연희뉴스

2006년 9월 5일 한미 FTA 3차 협상 장소인 미국 시애틀 기자간담회)

"제주도에겐 어머니같은 감귤을 미국이 빼앗아 가지 말기를 바란다"(열린우리당 김재운 의원, 2006년 12월5일 미국 몬테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한미 FTA 5차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에게)

"코러스(KORUS : 한국과 미국을 붙여 줄인 말) 베이비"의 출산을 축하한다"(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2006년 12월 8일 한미 FTA 5차 협상장에서 아바의 첫 출산을 지켜보지 못한 우리 측 협상단 일원에게)

"북한산을 넘는 것도 깔딱고개 있는데 이번 것은 첫번째 고비다"(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2007년 1월17일 6차협상에서 협상이 교착국면에 봉착했음을 시사하며)

美 쇠고기 10~20% 가격 인하 효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미 FTA 체결은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분야 외 일반 시민들이 곧바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변화상을 살펴본다.

미국 농산물 가격 내리개=현재 오렌지 관세는 50%, 사과·복숭아·포도 관세도 45%나 된다. 따라서 한미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가격이 싸진다.

세(40%)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0~20%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미 의류와 소프트웨어는 영향 없어=나키나 리바이스 등 미국의 의류·신발은 대부분 태국이나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생산해 판매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미 신약품 가격은 안 떨어져=의약품의 평균 관세(6%)가 철폐돼 가격인하 요인이 생기지만 국내에서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이 약값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폐지된 관세만큼 약값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굴 관세(6%)가 철폐돼 가격인하 요인이 생기지만 국내에서 굴은 국민건강보험이 약값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폐지된 관세만큼 약값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골프채와 생필품 가격은 떨어져 =골프채에 붙는 관세가8%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격인하요

인이 나타난다. 또 기타 생필품의 관세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자동차 가격 내리개=한미FTA 체결로 미국 차는 8%인 관세가 철폐되고 특수세·부가세 등 관련 세금까지 함께 내려지면서 10%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미국 드라마더 볼 수 있다=이제 지상파 방송에서도 미국드라마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외국 방송물 편성비율은 각각 20%, 50%지만 미국 측이 편성비율을 높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편성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dvertisement for (주)한국에텍. Promotes solar power systems with '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선정 740kw 확정. Includes details on solar panel systems and government subsidies.